

##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 인식

이정아\*

<차 례>

1.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
2.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 인식
3.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 인식
4. 자기 인식의 차이와 그 의미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규방가사에 드러나는 시집살이에 대한 여성의 자기 인식과 시집살이 노래를 통해 드러나는 자기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강력한 가부장제 아래 존재했던 서로 다른 계급의 여성이 지닌 자기 정체성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단일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는 조선 후기 여성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는 조선 후기 강화된 가부장제로 인해 이중 억압을 받았던 여성들의 말하기 욕망이 반영된 여성적 말하기의 장르이다. 이들은 양반 여성과 평민 여성이라는 각기 다른 계급에서 향유된 문화적 산물이지만 동시대에 존재한 여성 작가군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공유점을 가진다. 이러한 공유점을 근거로 양자가 지니는 차이를 드러낼 때 조선 후기적 상황에서 존재했던 여성적 자기 인식의 다른 양상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권영철의 『규방가사』와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작품들 가운데 시집살이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자기 인식 표현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규방가사 속 화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남성적 자아와 견주어 인식하는 반면 시집살이 노래의 화자는 출가 전 딸로서의 정체성을 중심으

\*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규방가사에 나타나는 여성으로 태어남 즉 여성적 자아에 대한 부정의식은 시집살이 노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치열한 자아 간 갈등 속에서 결국 규범적 자아를 따라가는 규방가사 속 화자와 달리 시집살이 노래 속 화자는 윤리적 갈등 즉 이념 지향적 자아와 자기 욕망적 자아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동시대에 공존했던 두 장르의 여성의 자기 진술이 담긴 여성적 텍스트로서 전형성을 지니지만 규방가사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자기 인식이 이념적 지향 즉 양반적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있는 반면 시집살이 노래 속 자아는 오직 일하기 위해 존재하는 개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은 출가 이전인 딸 시절로의 회귀를 꿈꾸는 퇴행 지향의 일면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주제어** 시집살이, 규방가사, 시집살이 노래, 자기 인식, 정체성

## 1.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

규방가사<sup>1)</sup>와 시집살이 노래<sup>2)</sup>는 조선 후기 강화된 가부장제로 인해 이

1) 규방가사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영철, 『규방가사』, 효성대출판부, 1985, 1-591면;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338면; 서영숙, 『한국 여성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 1-413면; 서영숙, 『조선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 역락, 2003, 1-318면;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대 박논, 2000, 1-155면;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25, 국제어문학회, 2002, 1-24면; 나정순, 최규수, 길진숙, 유정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1-324면; 양태순, 『규방가사에 나타난 ‘한’의 양상』,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05, 241-297면.

2) 시집살이 노래에 대한 연구는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 대응양상과 그 의미: 시집살이 애정 갈등 노래류의 ‘여성적 말하기’방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97-130면; 강진옥, 『여성민요 화자의 존재양상과 창작집단의 향유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5-32면, 2002; 강진옥,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9, 163-197면, 437-464면; 서영숙, 『시집살이노래연구』, 박이정,

중 억압을 받았던 여성들의 말하기 욕망이 반영된 여성적 말하기의 장르들이다. 주체적 욕망과 타자적 현실 사이의 갈등이 치열하게 드러나는 문예물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유사한 문화적 기능을 담당해 왔다. 양반 여성이나 평민 여성 모두 여성이라는 점에서 조선 후기라는 강력한 가부장제 하에 살면서 시집살이라는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이러한 억압의 환경에서 살아내기 위해 자기 욕망의 분출 통로로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를 향유했다.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는 양반 여성과 평민 여성이라는 각기 다른 계급에서 향유된 문예물로 비교를 통해 설명될 때 더욱 분명한 차이와 의미를 드러낸다.

규방가사와 여성 민요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양자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제제기는 이미 이정옥의 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sup>3)</sup> 이후 서영숙은 실제 규방가사와 여성민요 텍스트를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양자가 지니는 문학적 특징과 차이를 구체화하였다.<sup>4)</sup>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에 힘입어 연구자는 ‘시집살이’라는 소재를 한정하여 규방가사에 드러나 시집살이에 대한 여성의 자기 인식과 시집살이 노래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자기 인식을 비교하려 한다. 양반 혹은 평민이라는 계급적 차이를 기반으로 한 여성들 사이에서 ‘시집살이’가 어떻게 인식되고 수용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강력한 부권의 통제 하에서 이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이 어떻게 자기를 인식하고 시집살이의 현실을 수용 혹은 저항해나갔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권영철의 『규방가사』에 수록된 규방가사를 주된 자료로 시

1998, 3-83면; 서영숙, 「가족의 변경에 서서 부르는 노래」, 한국고전 여성 문학 연구 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83-117면; 줄고, 「시집살이 노래 구연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과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논문, 2006, 1-184면. 등이 있다.

3)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82면.

4) 서영숙, 『한국여성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 1-413면.

집살이에 대한 양반 여성의 인식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시집살이 노래<sup>5)</sup> 속에 드러나는 여성의 자기 인식과 비교하기로 한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자칫 단조롭고 천편일률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조선 후기 여성의식의 일면을 살펴보고 당시 공적 말하기로 드러낼 수 없었던 여성적 욕망과 자기 인식의 양상들을 찾아냄으로써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존재했을 여성적 자의식들을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다.

## 2.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 인식

가사는 4음 4보격의 율문 표출이라는 통제만 존재할 뿐 다른 제한이 없는 개방적 장르로서 조선 후기에 이르러 다양한 장르적 형태를 수용하면서 향유된 장르이다. 특히 여성들이 전유한 규방가사는 가사의 이러한 개방적 성격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로서 양반가의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보유했고 있었고 문중모임을 통해 이를 공유하였다.<sup>6)</sup>

5) 구비문학대계의 시집살이 노래 유형 정리는 줄고를 통해 정리한 바 있다. 수록된 시집살이 노래는 모두 322편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각 편수를 보유한 자료는 <형님형님 사촌형님>(52편)이다. 그 다음으로 <중이 된 며느리>가 46편을 차지하고 있고 <진주낭군>이 41편, <누명 쓰고 자결한 며느리>가 16편, <형님형님 쌀한외>가 15편, <양동가매 갠 며느리>가 14편, <시집식구 비유>가 14편, <홍글소리>가 11편, <친정부고>가 10편, <꼬떡각시> 5편, <땡노래> 4편, <깨끼적삼 찢은 시누이> 3편 등이다. 본 논의를 위해 주로 인용된 자료들은 <중이 된 며느리>와 <홍글소리>로 시집살이에 대한 한탄이 직접 드러나는 작품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참고, 『시집살이 노래 구연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과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논문, 2006, 1-184면.

6) 권영철, 『규방가사』, 효성대출판부, 1985, 1-591면; 백순철, 『내방가사의 작품 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155면; 이정옥, 『내방가사의 향유자 연구』, 박이정, 1-338면;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의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25, 국제어문학회, 2002, 1-24면; 나정순, 최규수, 길진숙, 유정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1-324면.

조선 후기 양반가의 여성적 삶이란 유가적 이념에 의해 제한되고 통제되었던 터라 안팎으로 상당한 제약을 안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형성된 규방가사는 여성들이 자신의 말을 토해낼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 담론의 장이기도 했다. 말하기가 억압된 현실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말을 담아낼 수 있는 통로였다는 점에서 규방가사는 시집살이 노래와 같이 여성이 말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표출하고 내적 치유를 추구했던 생활 문예물로서의 특징을 공유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남성 작가를 통해 산출된 가사와는 차별화된 규방가사만의 독특한 여성적 진술 방식과 미적인 특질을 담고 있다.

최근 규방가사 연구는 바로 이러한 여성적 진술의 특징에 주목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먼저 규방가사를 통해 추출되는 여성의식에 관한 연구를 시도한 이정옥은 규방가사에 나타나는 여성의식에서 양반적 사고와 서민적 사고라는 상반된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모순된 사고의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탄’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하였다. ‘탄’이라는 작가의식의 표출방식이 작가가 신분적으로, 성적으로 택한 이원성의 갈등을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반영하는 소극적 저항의식이라고 하면서 여성 민요와의 비교 검토를 제안하였다.<sup>7)</sup>

서영숙은 규방가사라는 용어 대신 여성가사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여성가사에는 양반으로서의 인정과 여성으로서의 좌절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여성가사를 평민여성의 민요와 작가와 독자의 관계라든가 서술자와 작중인물의 관계, 서두와 결말의 관계 등을 비교하면서 양자간의 차이점을 면밀히 살펴나갔다.<sup>8)</sup> 이러한 비교를 통해 추출된 여성가

7) 이정옥, 『내방가사 향유자 연구』, 박이정, 1999. 1-388면.

8) 서영숙, 『한국여성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 1-413면 ; 서영숙, 『조선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 역락, 2003. 1-318면. 시집살이 노래가 개인 발화로 된 작품만 있고 집

사와 여성 민요를 통해 드러나는 전반적인 특징은 주로 이것을 연행하는 집단의 폐쇄성 여부와 이것을 향유하는 방식 즉 노동의 기능과 관련되느냐 여가를 즐기기 위한 목적이나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였다.

이동연은 혼인을 중심축으로 펼쳐지는 여성 탄식을 대상으로 여성작가 자신이 여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측면 즉 학식이 있어도 가사노동이 전념해야 하는 현실, 출입이 가정 내로 제한되어 자유로이 유람 다니지 못하는 점, 혼인을 통해 부모, 형제 친구들과 이별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텍스트를 통해 시가가 타향이자 노동의 공간, 언로 폐쇄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현재적 공간이라면 반면 친정은 고향, 사랑받는 곳, 휴식과 놀이의 공간이자 언로의 개방의 공간으로 과거의 공간으로 인지되어 양분화 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여탄가>에서 나타나는 시가에 대한 노골적인 불평은 시부모나 시댁문벌에 향한 것

---

단 발화도 된 작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시집살이 노래의 청중이 같은 또래 즉 동류의 사람들로 한정하기 때문이라면서 여성가사는 동류의 사람들을 일차적인 청중으로 할지라고 문자로 기록되어 공개될 것을 전제로 하기에 집단 발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다. 또한 시집살이 노래나 여성 가사는 모두 시집간 여자가 시집에서의 생활에서 겪는 고난을 노래했지만 시집살이 노래에서는 서술자가 작품 내 주인공을 어느 정도 자신과 분리화하여 객관화하는 반면 여성가사는 서술자와 주인공이 일치되거나 동일시되고 있었는데 이는 시집살이 노래가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연행된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한 까닭에 전승적 요소가 많은 노래로 불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창작적 요소가 많을수록 작품에 대한 몰입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성가사의 경우는 창작적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몰입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성 민요는 서술자와 작중 인물이 일치되지 않는 전승적 요소가 강한 공동의 노래라고 한다면 여성가사는 서술자와 작중 인물이 일치되는 창작적 요소가 강한 개별적 노래라는 것이다. 또한 시집살이 서사전개에 있어서 시집살이 노래는 대부분이 좌절에서 시작하는데 반해 여성가사는 대부분 안정에서 시작한다고 보았다. 이는 여성가사가 좌절에 처한 상황에서 서술한 것이 아니라 안정된 상태에 있던 과거를 회고하면 서술하기 때문이며 서술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여성 민요처럼 고된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는 안정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것이다.

이 아니라 시누이와 동서와 같은 동년배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가식구에 대한 화자의 이중적인 태도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탄식은 고단함에서 나오는 순간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화된 삶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생의 비극적 전망인 동시에 여성적 삶에 대한 비판과 현실적 체념이 동시에 깃들여 있다고 보았다.<sup>9)</sup>

신경숙은 규방가사에서 이중의식을 드러낸다고 해석되는 텍스트의 언어적 특징, 즉 이성과 감정의 혼합, 감정 주도적, 비유기적 구성 등은 억압과 불공정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해 사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10)</sup>

대체로 규방가사를 다루는 선행 논문들은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 화자의 균열된 이중의식은 양반적 신분 의식과 여성적 현실 사이에서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텍스트를 통해 드러나는 자탄의 방식이 여성적 삶의 모순과 비극적 전망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견해, 불안정해 보이는 텍스트 내의 화자 진술이 억압과 불공정을 경험하는 이들의 하나의 사유방식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규방가사를 통해 확인되는 여성의 자기 인식은 자신이 양반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라는 상반된 정체감에서 오는 갈등이 주된 것이었다. 양반으로서의 자기 정체감은 지배담론을 유지하는 규범적 자아를 지향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이념 지향적 태도를 드러내지만 여성적 정체감은 규범적 자아가 지향하는 바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 즉 친정과의 이별, 낮은 환경에서의 적응, 과중한 노동 등을 탄식하고 갈등한다.

---

9) 이동연, 「고전여성시가 작가의 문학세계」, 이해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론』, 태학사, 312-358면.  
 10)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25, 국제어문학회, 2002. 1-24면.

친정과의 이별, 낮은 환경에서의 적응, 과중한 노동 등과 같은 현실로 인해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은 규방가사 뿐 아니라 시집살이 노래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규방가사를 통해 드러나는 화자 의식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

무엇보다도 규방가사의 화자들은 결혼 전 자신이 양가집 규수로 귀한 대접을 받으며 자랐음을 강조하여 말한다.

십식을 치와 탄싱하여 / 아달쌀 분간업시 주옥갓치 스랑하여  
아픈즈리 가라가며 치우면 지울시라 / 더우면 더울시라 만단슈션 골물중도  
좁시라도 안이잇고 저절떡여 좁을지고 / 척푼천니 모와너여 첼피이복 곱가지여  
몸간슈도 정히하고 육칠시라 즈라나셔 / 비단명주 침즈질과 마푼무명 물이기를  
조리잇기 가라치며 본문기억 이언가라 / 철부지 어리셔금 전후실슈 만컨마는  
우리어매 한번도 눈긱드듯지 안이하며 / 한번도 밋질 아니하니..

<정부인자탄가><sup>11)</sup>

나도나도 이럴망정 아해시절 귀여스니 / 삼사오세 노름함은 방득깨비 세간살림  
폴뜨더서 각시하기 이거슬 일삼아 / 육칠팔세 게오들며 천자사략 언문으로  
일일이 섭엽하야 십세가 다다른이

<봉우소회가>

첫 번째 소개한 <정부인 자탄가>의 화자는 주옥같이 사랑받으며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귀한 대접을 받으며 친정어머니에게 꾸지람 한번 당해 본 일 없이 자란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두 번째 제시한 <봉우소회가>의 화자 역시 귀하게 자라며 풀 뜯어 각시놀이하던 유년시절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어린 날을 회상하고 있다.

11) 권영철, 『규방가사』, 효성대출판부, 169면. 앞으로 제시되는 권영철의 자료는 작품 명만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귀하게 자라 손에 물 한번 묻히지 않고 자란 양반가의 여성들 역시 시집을 가면서 부엌을 나가 밥을 해야 했고 층층이하 시집 식구들 밥상을 따로 차려가면서 정작 자신은 부엌 한 귀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밥을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양반집 자손으로 태어나서 고생 없이 지내다 시집 가서 시집식구 수대로 여러 번 밥상 차리고 자신은 부엌에 쪼그려 앉아 밥 먹으려 하니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는 한우금의 말<sup>12)</sup>처럼 양반가의 여성 역시 결혼과 함께 집안의 노동을 담당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여성적 현실을 피할 수는 없었다. 양반가 여성들은 밥을 하고 밥상을 차리는 일 외에도 제사를 받드는 일, 객을 대접하는 일, 명주길쌈 삼베길쌈하는 일, 술 담그는 일, 바느질 하는 일, 빨래하는 일 등등 잠잘 시간도 없을 만큼 파중한 노동을 수행했다.

누되중가 중부되여 봉지스도 조심이요 / 통계중문 호가스에 접민직도 어렵더라  
 모수나이 습비나이 명주짜기 무명짜기 / 파람이어 틈을본이 작업방직 어렵드라  
 밥잘미저 술잘비저 주스시에 어렵더라 / 혼담을 맞게하여 반간보기 어렵더라  
 세목중목 놀라니여 무지다듬 어렵드라 / 즈주비단 잉물치마 염색하기 어렵드라  
 춘복지여 호복지여 빠래하기 어렵드라 / 동지장야 호지일에 호고만흔 저세월에  
 첩첩히 싸인일홀 호고흔들 다할손가  
 <여자가라>

위 작품에는 피해갈 수 없는 가사 노동 담당자로서의 여성의 고단한 삶이 잘 나타나고 있다.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양반가의 여성들은 결혼 전에는 부녀의 덕목으로 바느질 같은 일을 배웠을 뿐 직접적인

12) 2005년 12월 자양동 경로당에서 채록한 한우금의 시집살이 체험담. 줄고, 『‘시집살이’ 말하기에 나타난 균열된 여성의식 : 시집살이 체험담과 시집살이 노래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3집 1호, 한국여성연구원, 2006.6, 189-219면.

가사 노동을 담당하지 않았다. 침선 같은 가사 일을 배웠지만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적 규범을 준수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결혼 후 갑자기 자신에게 부과된 과중한 노동은 육체적인 힘겨움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대부분 양반가의 여성들은 더부살이하는 집안 머슴의 아내나 딸이 해주는 밥을 먹으며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현실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과중한 가사 일을 전담해야만 했던 여성은 시집에서 신입자로서 심적 갈등도 겪어야 했다.

범갓탄 시아빰이 굿정날가 쥬야걱정 / 여시갓탄 널근시모 이리비틀 저리비틀  
 벗디갓탄 시누졸기 들낭날낭 씻글씨글 / 말미같은 여려동서 이리슈덕 저리슈덕  
 방전마전 우릿가장 불고사정 처즈박디 / 이룻타시 엄한즈티 목그럽고 어린소견  
 하든일도 못하깃고 오른일도 결너가내

<부녀가>

눈치빠른 맛동서요 개살구진 시누이라 / 안이서도 눈치보고 거름마다 맵시본다  
 <여자자탄가>

규방가사를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말하기에는 결혼이 가져다준 육체적 노동에 대한 불만과 가족들이 보이는 심리적 견제와 같은 미묘한 심리전으로 인한 고통 등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 육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중한 노동과 심적으로 받게 되는 억압과 좌절감은 시집살이 노래의 화자가 경험하는 여성적 현실과 동일한 갈등과 내적 동요를 가져오는 듯 보인다. 규방가사 역시 시집살이 노래 <시집식구 비유>와 같은 노래에서 보이는 웃음의 장치를 활용하여 시집식구들을 빗대기도 하고 그들의 모습을 희화화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적인 상대에 대한 비틀기의 태도는 명

문가의 딸로 자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을 통해 언제나 통제되고 있다. 웃기위한 비아냥거림이라든가 웃는 즐거움을 위한 저항으로 치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자존감에 의해 언제나 평정을 찾게 되는 것이다.

나도역시 건문가의 교육바든 안목이라  
천훈이도 귀히되고 귀훈이도 천개된다

<여자자탄가>

자신이 권문가의 교육을 받으면서 귀하게 자랐다는 자의식과 자존감은 앞서 지적한 육체적 노동자로 전락한 현실과 미묘한 신경전을 벌여야 하는 시집생활에서 더 큰 비애감과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규방가사의 화자는 며느리로서 직면하게 되는 삶의 변화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숙명이라 인식하고 있다.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할 변화이자 역할이라 여기고 있다.

부모동귀 다바리고 불원천리 오난쓰전  
숨강오룬 늑흔범과 여필종부 중함이라

<여자소회가라>

규범내측 삼중지도 우리역시 못면하고  
여필종부 이성함에 운상전후 되룬혹발  
금봉채로 언약한후

<소회가>

결혼 이후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규방가사의 화자는 탄식하며 슬퍼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달래며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준행해야 한다는 규

범적 자아로서의 자존감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규방가사의 여성 화자가 가지는 자기 정체감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규방가사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 의식은 규범적 자아와 주체적 욕망을 지닌 자아가 빈번하게 충돌하지만 이 충돌 지점에서 언제나 규범적 자아가 우위를 점하고 규범적 자아의 강력한 제어를 통해 내적 갈등을 무마시키려 한다. 이러한 갈등은 곧바로 자신이 여성으로 태어남 때문이라는 성적 정체성에 대한 부정의식으로 이어진다. 규방가사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으로 태어남에 대한 탄식은 바로 이러한 이중적 자아의 갈등에서 우위를 점한 규범적 자아가 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갖게 되는 심리적 방위 기제처럼 보인다. 남성으로 태어났다면 겪지 않았을, 여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운명적인 불행이라는 인식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애써 수용하려는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오흠다 여자들아 이내말슴 들어봐라 / 제류부디 천타마라 만물중의 귀히니라  
남자로 못디이고 여행된이 급분흐다

<여자자탄가>

남즈명분 못타나고 여즈몸이 되얏난고 / 천지일월 정신바다 우리인성 점지하야  
남즈여즈 분간질지 목불복이 되얏던가 / 지악으로 마른튼가 복이시시면 남즈되  
고  
죄잇시면 여즈된가 엇지아여 남즈되고 / 엇지혀여 여즈된고

<부녀가>

어와 가소롭다 여자된일 가소롭다 / 가소중에 슬프도다 슬픈중에 구뽀도다  
전생에 무삼죄로 여자신이 되단말가 / 흥중의 만단회포 담문으로 기록하니  
<여자소회가라>

어와우리 분여들이 이니원정 드러보소 / 천지일월 풍기라도 명순덕천 경기바다  
우리인성 싱길적의 엇짓타가 우리들년 / 남즈명분 못타나고 여즈몸이 되얏난  
고..중략..

죄잇시면 여즈된가 엇지하여 남즈되고 / 엇지하여 여즈된고

<부녀가>

자신이 여자로 태어남 자체가 이미 죄라는 식의 운명론적인 태도를 통해 자기 방위의 기제를 만들어낸 여성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함을 탄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남성답지 못한 남성에게 대한 조롱과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어와 남즈들이 여즈를 웃지마소 / 여즈는 무식하니 보비운데 업거니와  
남즈는 유식하니 그른일이 이슬손가 / 칠팔세에 글을 비와 소연등과 하온후의  
슈령방빅 훌니사라 부모효양 바렀더니 / 어이하여 지금남즈 이전일을 모르난고  
학업을난 고스하고 가사에도 쓸썸업다 / 게으르기 짝이업고 능중키도 그지  
업서

압집초당 뒷집초당 투전이야 바독이야 / 나가면 탁쥬산양 드러오면 낮잠일다..

중략..

한말이나 디답흐면 푸리나 하려호고 / 아회도 싸듯난덧 그릇도 셔럿난듯

몇회공은 못해던고 계집된 니팔즈야 / 아마도 죽어드시 남즈흔번 되스이다

<장탄가>

규방가사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부정의식은 여성이라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양반적 자아 즉 어릴 적부터 내면화하였던 규범적 자아가 여성적 현실에 반응하는 태도라고 보인다. 이것은 양반이면서 동시에 여성인 상반된 정체성을 내면화한 여성이 가질 수밖에 없는 자기 방위의 기제이며 이를 통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지

배하는 사회에서 살아야 했던 양반가 여성의 존재론적 비애를 짐작하게 된다. 규방가사의 화자들이 공유하는 여자됨이 죄라는 식의 자기 젠더에 대한 부정의식은 양반 여성이 태어나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내면화한 양반 여성들의 자기 인식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집살이 노래와 달리 규방가사의 화자는 이미 규범적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교육받고 이러한 윤리적 삶을 실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훈육 속에 자라게 된다.

십시가 넘은후이 여자홀일 비와보자 / 부모압해 효양하고 동기간의 우이잇고  
늘근스름 공경하고 이웃사름 화목하다 / 잇팔광음 닷쳤으나 금엇을 못홀소냐  
규중심쳐 못채잇서 어진홍신 잘비우며 / 빙사가 규비하니 침선방적 못홀소냐..  
중략..

여보시오 동기드랑 여자홀일 생각하니 / 봉재사 적빈객이 교유중의 재인이라..  
중략..

우리엄마 흥신물슴 시택이 같지라도 / 번백사를 조심하고 부모홍얼 듯지마라  
말끗마다 조심하고 말끗마다 조심하라

<여자자탄가>

우리엄마 하신말삼 이명삼시 철모르는 / 어린너를 보낸후에 이네마음 편할손가  
남의가문 거가들랑 옥먹잔키 잘사라라 / 남의가문 네가가서 시집사리 잘못하면  
사돈인정 끈어지고 친정부모 옥먹인다

<여탄가>

부모에게 효하고 동기간에 우애 있게 지내며 침선 방적이라든가 제사 받드는 일 등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이니 성실히 이행하고 시집에서 말하기를 조심하며 남의 가문에 가서 옥먹으면 친정 부모 옥 먹이는 것이니 조심하라는 당부를 들으며 자랐던 까닭이다. 이러한 훈육환

경이 규범적 자아를 자기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양반 여성의 중요한 자기 인식의 기준으로 자리하게 만들었다고 보인다.

### 3.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 인식

시집살이 노래는 가부장제가 여성의 삶으로 정착하면서 불리기 시작한 노래로 시집살이가 조선 후기 여성적 삶으로 정착하면서 활성화된 노래이다. 이 노래는 시집살이에 반응하는 다양한 여성의 감정이 담겨 있으며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이를 표출하고자 하는 여성적 욕망이 담겨 있다.<sup>13)</sup> 주체적 욕망과 감정적 상흔이 공존하는 시집살이 노래 속에는 평민 여성의 삶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평민 여성들 역시 개개인의 체험에 따라 다르지만—어떤 이는 애지중지 자라기도 하고 어떤 이는 딸이라 천대받으며 자랐다고 하지만—친구들과 놀러 다니며 나물 뜯으러 다니는 자유로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물론 여자가 밖을 어떻게 나다닐 수 있겠느냐는 말하는 이도 있지만 대체로 평민 여성들은 유년시절 나물 뜯으러 다니며 노래도 부르고 놀이도 했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sup>14)</sup>

양반가의 여성이나 평민가의 여성이나 모두 결혼 전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제약 없이 지냈다. 양반가의 여성은 육, 칠세가 되면 언문이나 천자를 익히면서 여성적 규범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평민가의 여성은 실생활에 필요한 역할 즉 동생을 돌보거나 나물을 뜯어오거나 길쌈을

13) 참고, 앞의 논문, 1-184면.

14) 참고, 앞의 논문, 189-219면. 한국여성연구원, 2006.6, 189-219면. 이 시기 같은 또래와 나물 뜯으러 다니면서 노래 불렀다는 것은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하는 보편적인 일상이라고 보인다.

거드는 정도의 가사일을 하며 자랐다. 집안에서 준수하는 규범적 삶을 교육 받으면서 자랐던 양반 여성과는 달리 평민 여성은 가사 일을 돕는 참여자로서 노동 현장에서 어머니 혹은 할머니들의 생활에 동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5)</sup>

바로 이 지점에서 시집살이 노래의 화자가 딸로 살았던 현실과 규방가사의 여성이 딸로 살았던 현실이 갖게 되는 자기 인식의 근본적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규방가사의 화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태어난 부계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긍심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내면화하며 자라게 된다. 글을 읽을 줄 알게 될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친정어머니가 일러주는 훈육을 들으면서 여성으로서 살아내야 할 자신의 미래를 교육받게 된다. 반면 평민 여성은 생계를 위해 행해지는 노동의 현장이 삶의 현장이자 교육의 현장이 되면서 이러한 현장에서 무심결 접하게 되는 자신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 동네 아주머니들의 탄식과 체념, 저항과 해학의 말과 노래들을 들으며 자랐다.

이렇게 양반 여성과 평민 여성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환경이 달랐다. 전자가 부계 혈통으로서의 자긍심을 내면화 하면서 동시에 여성적 정체성을 형성해나갔다면 후자는 고된 일터에서 생존을 위해 노동하던 자신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로부터 그들 속에 각인된 타자적 정체성을 내면화하면서 성장했다. 시집살이 노래를 향유했던 여성들은 어린시절부터 육아와 가사 일을 돕는 조력자로서 기대를 받으면 자랐다. 딸 노래와 같은 노래에는 이러한 기대가 잘 드러나고 있고,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는 여성 생애담을 통해서도 이런 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sup>16)</sup>

15) 줄고, 「시집살이노래에 관한 일고」, 『한국고전연구』 1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6, 264-291면.

16) 줄고, 앞의 논문, 189-219면.



반면 규방가사에서 발견되는 자기 성에 대한 부정의식은 시집살이 노래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시집살이 노래에는 딸로 살면서 제약 없이 지냈던 비교적 자유로웠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난다. 동시에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던져진 현실 즉 문서 없는 중, 며느리로 살게 된 절박함만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시집살이 노래에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이 제시되지도 않고 그러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여성의 삶이라는 이념 지향적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오로지 의식주가 위협받는 생존 현실과 식구들이 보이는 몰인정함만이 강조된다. 규방가사에서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부정 의식이라든지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작품을 통해 빈번히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시집살이 노래 속 화자는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비인간적인 삶의 현장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처절함과 그로인한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불거치라 더운날에/미거치라 지순밭을/한골매고 두골매고/삼시골을 매고  
나니/다린정심 다나가고/이내정심 안나오네/정습찾아 들어가니 /정재있는  
시아바님/그거사 일이라고 /낫을찾고 때를 찾에/나라이년 물리쳐라/에라이  
년 둘러쳐라/시금시금 시아바님/아가아가 며늘아가.. 중략...다린정심 다나  
가고/이내정심 안나오네/ 밥이라서 주는거는/시커만 보리밥을/사발굽에 부치주  
고/장이라 하는것은/삼년묵은 꼬랑장을/접시굽에 부치주고/술가락이라 키는거는/정  
사관내 통시불을/깍어주고 그기라사/묵고나니 배가아파/못살겠다

『구비대계』 7-4, 349-356면

대표적인 시집살이 노래인 <중이 된 며느리>의 한 장면이다. 하루 종일 불같이 뜨거운 날 밭을 매고와도 그것도 일이라고 했느냐며 시집식구들이 차례로 나와서 구박을 하고 있다. 그들은 며느리에게 시커면 보리밥을 사

발굽에 부쳐주며 먹으라고 내어준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꼬랑장을 받아 든 며느리는 허기진 배를 움켜지면서도 도저히 못 먹겠다 통곡하며 집을 나서는 것이다.

규방가사의 여성 화자는 규범적 자아와 여성적 자아의 갈등을 텍스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표현해나가는 반면 시집살이 노래의 화자는 가혹한 노동과 배고픔이라는 극한 상황을 설정하여 텍스트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규방가사가 이미 내재된 내적 자아간의 갈등이 시집살이라는 현실에 의해 하나씩 선명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시집살이 노래 속 화자는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의 상황이 주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 서러움과 두려움, 미움과 분노 등의 감정적 반응을 직접적으로 토로함으로 고통스런 시집살이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전자가 규범적 자아와 욕망적 자아의 갈등을 일정한 자의식 즉 양반가의 여성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경계선에서 말하고 있다면 후자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함으로 자신이 당면한 시집살이의 현실을 리얼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규방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화자 의식 역시 시집살이 노래의 화자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관문에 들어서면서 친정 식구와 이별이라는 심리적 위기감과 낯선 타지에서 적응해야 한다는 신입자로서의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적 동요는 어릴 적부터 이미 습득한 내면화된 여성으로서의 삶과 그 정체성에 대한 숙지를 통해 수습되는 양상을 보인다. 안타깝고 슬프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기정화된 현실을 수용하는 체념적 모습도 엿보인다. 그러나 시집살이 노래의 화자는 여전히 수용할 수 없는 며느리로서의 현재적 자신을 노래하고 과거 딸로 지냈던 어린 날에 대한 미련을 좀처럼 버리지 못한다.

시집와사 시집살이 험적으는 / 나도부모 자식으로 / 귀한자식이 되얏는디 /  
시집을 와서보니  
밥을히먹을중도 모르고 / 물도지릴중도 모른디

『구비대계』 5-7, 239-240면

우리 부모 나를 낳여 / 곱기 곱기 길러가주 / 념의관문에 시집을 보냐 / 인심살이  
가 소박하던강  
은가락지 끼던손에 / 호맹이꼭지가 웬일이고 / 꽃땡이라 신던발에 / 화라기짚신  
이 웬일이고  
금봉채를 하던머리 / 낮비녀가 웬일이나 / 비단처마 감던 허리 / 삼베처머가  
웬일이고

『구비대계』 7-4, 349-356면

시집오기 전 자신은 귀한 자식으로 곱게 자라 온갖 단장을 하며 자랐다는 화자의 탄식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은가락지 끼고 금봉채 하며 꽃신 신던 시절로 회상되는 친정에서의 삶은 평민 여성의 유년 시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호사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화자의 말은 사실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심적으로 느끼는 기억의 풍요로움, 딸로서 귀염 받으며 자란 기억,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었던 친정에서의 삶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진실성을 함축하고 있다.

시집살이 노래에서 친정에서 받은 딸로서의 대접이 외적 치장으로 일관되고 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자신의 생애담을 말하는 여성들은 친정에서도 살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화려한 치장이 가능했던 시절로 회상되는 시집살이 노래의 이러한 표현들은 규방가사가 회고하는 친정에서의 삶과 여러모로 대조를 이룬다.

아픈즈리 가라가며 치우면 지울시라 / 더우면 더울시라 만단슈션 골몰중도

좁시라도 안이있고 저절먹여 줌을지고 / 척퉁천니 모와니여 첼피이복 곱가지여  
몸긴수도 정히하고 육칠시라 즈라나셔 / 비단명주 침즈질과 마훈무명 물이기를  
조리잇기 가라치며 본문기억 이언가라

<정부인자탄가>

삼사오세 노름함은 방득깨비 세간살림 / 풀뜨더서 각시하기 이거슬 일을삼아  
육칠팔세 게오들며 천자사략 언문으로 / 일일이 섭엽하야

<봉우소회가>

위의 자료에서 보듯 금지옥엽 정성스럽게 자신을 기른 부모의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열거되기도 하고 어릴 적 자신이 놀이삼아 하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기도 한다. 주목할 것은 그들이 자라면서 배운 교육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인데 규방가사의 화자가 기억하여 떠올리는 친정에서의 삶은 인격적 대우와 좋은 교육, 재미있는 놀이가 갖추어진 유복한 환경이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균형을 이룬 양육환경이 열거되는 모습은 시집살이 노래의 외적 치장에 대한 회고적 자탄과는 대조적이다.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어머니를 그리는 화자 감정 역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실프다 이너마암 오미일염 어미싱각 / 자모안면 보고저라 자모성음 듯고저라  
보고저라 눈이삼삼 듯고저라 귀이징 / 연심하고 병든모양 매별하고 더늘는다  
..중략..

기려워라 우리부모 사라이별 무삼일고 / 조조모모 싱각이요 시시췌췌 회포로다

<여자소회가라>

엄매엄매 우리엄매 / 멋할라고 날낳든가 / 날뵈적에 토란노물 즐겼든가 / 토란  
갈시로 더서럽게

엄매엄매 우리엄매 / 멋랄라고 날벨적에 / 나세노물 즐겨든가 / 난날이 더서럽네  
엄매엄매 우리엄매 / 멋랄라고 날백적에 / 뱃추노물 즐겼든가 / 벨제마당 어매  
생각

이리생각저리생각 / 생각끝에 엄매생각

『구비대계』 6-1, 242-243면,

앞서 제시한 규방가사의 화자는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절절한 심정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뒤에 제시한 시집살이 노래 속 화자는 그리움보다는 원망이 우선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원망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처럼 보이지만 그리움보다는 원망과 서러움 쪽에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는 듯 하다. 이렇게 ‘멋랄라고 날날 든가’ 원망하는 시집살이 노래와는 대조적으로 규방가사에서는 ‘오매일엄 어매생각’이라며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오직 여자로 태어났음을 탄식하고 여성으로 지켜야 할 규범을 원망할 뿐이다.

원수로다 원수로다 구범이 원수로다

<여자자탄가>

구범이 원수라는 인식 즉 사회적 규범 자체가 가지는 불합리성에 대한 대 사회적인 자아 인식은 시집살이 노래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시집살이 노래에는 의식주의 문제, 시집식구의 구박과 푸대접이라는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고통들이 자신이 직면한 절실한 생존의 문제이자 자기 인식의 중요한 배경으로 부각되고 있다.

#### 4. 자기 인식의 차이와 그 의미

이상 논의를 통해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에 나타난 화자의 자아 인

식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라는 여성적 현실에 직면하여 이에 반응하는 양반 여성과 평민 여성의 의식을 살펴보았다. 규방가사는 지배담론을 내면화한 양반적 의식과 타자로서의 여성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집살이 노래의 여성화자가 가지고 있는 타자 의식과는 차별되는 내적 갈등 양상을 드러낸다. 규방가사를 통해 드러나는 양반으로서의 자아인식은 자기 성에 대한 부정의식으로 곧 잘 이어지지만 시집살이노래의 화자는 자기 성에 대한 부정보다는 과거 딸로서의 시절을 집착하면서 며느리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sup>17)</sup> 그래서 시집살이 노래의 화자는 육체적, 사회적, 인격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생존의 현실에 직면하며 생긴 탄식과 분노, 미움과 조롱 등의 감정을 두서없이 표출하기도 한다. 반면 규방가사의 여성은 양반적 자아와 여성적 자아라는 상반된 자기 인식에 갈등을 느끼지만 결국 규범적 자아가 우위를 점하는 품위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직면한 여성적 현실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면모를 드러낸다.<sup>18)</sup> 어떻게 보면 양반적 자아를 내면화한 여성이 여성적 현실을 살면서 느끼는 심적 갈등은 평민 여성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크고 치열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평민 여성들은 표면상으로는 물리적, 사회적, 인격적 욕망이 모두 제한된 현실을 살았지만 규범적 자아가 주는 내적 갈등 없이 현실을 살았다. 이러한 탈 규범적 자아인식이 시집살이 노래 속 화자의 발화를 직접적이고 생동감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독백 주의적 태도<sup>19)</sup>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

동시대에 공존했던 두 장르의 여성의 자기 진술이 담긴 여성적 텍스트

17) 줄고, 앞의 논문, 136-145면.

18) 물론 작품마다 개별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규방가사 대 시집살이 노래라는 장르간의 화자 의식을 비교해볼 때 그러하는 것이다.

19) 줄고, 앞의 논문, 105-114면.

로서의 전형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을 공유하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이를 향유함으로 강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것을 통해 자신들의 감추어진 내적 감정을 꺼내어 소통하고 위로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서적 리얼리즘<sup>20)</sup>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이 닮아있다. 그러나 규방가사를 통해 드러나는 양반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타자 의식은 시집살이 노래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시집살이 노래에서는 오직 딸로 태어나 시집을 와서 겪는 육체적 고통만이 드러나고 있고 규방가사가 드러내는 서로 다른 두 자아간의 갈등이라든가 균열은 나타나지 않는다. 기본적인 생존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 가져다주는 비통함과 그로 인한 극단적 행동(가출, 자살)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진다. 잃을 것이 없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기표출의 양상은 언제나 극단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상 규방가사와 시집살이 노래를 비교함으로써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여성적 말하기의 대표적 장르들이 드러내 보이는 여성적 자기 인식의 차이를 설명해보았다. 규방가사의 화자는 가부장적 규범의식을 정체성의 중심에 두면서 자신이 처한 여성적 현실을 탄식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정체성 간의 충돌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성적 정체성에 대한

20) 정서적 리얼리즘(emotional realism)은 이엔 앙(Ien Ang)이 사용한 용어로 그는 <Watching Dallas>를 통해 여성 수용자가 실생활을 통해 체험하는 정서구조를 연속극을 통해 확인하면서 수용자가 얻게 되는 즐거움을 정서적(감정적) 리얼리즘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행과 불행의 교차, 지속될 수 없는 행복, 유예된 행복 등을 드라마를 봄으로써 확인하게 되며 이러한 확인을 통해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이 감정적 리얼리즘은 시집살이 노래, 규방가사를 공유하는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느끼는 미적 쾌감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고 보이며 오늘날 텔레비전 드라마, 쇼, 라디오 토크프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 등을 통해 재현되는 여성적 말하기를 통해서도 발견되고 있다. Ien Ang, *Watching Dallas*, London and New York, 1985, pp.1-136.

부정의식은 규방가사 화자가 드러내는 중요한 여성 의식의 특징이었다. 반면 시집살이 노래의 화자는 이와는 달리 절박한 생존의 문제(의식주)에 직면한 자아가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겪는 불안과 갈등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여성적 정체성에 대한 부정의식은 보이지 않았다.

현실에서 말할 수 없었던 자기 욕망이라든가 자기 인식의 양상은 그들이 생활 속에서 향유한 텍스트를 통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러한 흔적들을 통해 자칫 단일하게 일반화되기 쉬운 조선 후기 여성의식의 문제를 다양하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논의가 보다 포괄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철저한 통계를 근거로 이러한 양상을 정리하고 해석하지 못한 점은 미흡함으로 남는다.

논의를 통해 살펴 본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 인식들을 바라보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욕망을 분출하고 이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듯 보이는 오늘날 여성들의 삶이 그들의 삶과 견주어 질 때 오히려 나약하고 무기력하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본다. 우리는 진정 건강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갈망을 더 이상 욕망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게 된 것일까?

#### 참고문헌

Ien Ang, *Watching Dallas*, London and New York, 1985, pp.1-136.

강진옥, 「서사민요에 나타나는 여성인물의 현실 대응양상과 그 의미: 시집살이 애정 갈등 노래류의 ‘여성적 말하기’방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9, 한국구비문학학회, 1999, 97-130면

강진옥, 「여성민요 화자의 존재양상과 창자집단의 향유의식」, 『한국고전문학연구』 4, 2002, 5-32면,

강진옥, 『한국고전문학작가연구』, 태학사, 1999, 163-197면, 437-464면.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 이우출판사, 1980, 1-327면.



- 권영철, 『규방가사』, 효성대출판부, 1979, 1- 591면.
- 나정순, 최규수, 길진숙, 유정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역락, 2002, 1-324면.
- 백순철, 『내방가사의 작품 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155면.
- 서영숙, 『시집살이노래 연구』, 박이정, 1996, 3-83면.
- 서영숙, 『우리 민요의 세계』, 역락, 2002, 1-512면.
- 서영숙, 『조선후기 가사의 동향과 모색』, 역락, 2003, 1-413면.
- 서영숙, 『한국여성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 1-318면.
- 서영숙, 「가족의 변경에 서서 부르는 노래」, 한국고전 여성 문학 연구 1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4, 83-117면.
-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25, 국제어문학회, 2002, 1-24면.
- 양태순, 「규방가사에 나타난 ‘한’의 양상」, 『한국시가연구』18, 한국시가학회, 2005, 241-297면.
- 이동연, 「고전여성시가 작가의 문학세계」, 이혜순외 『한국고전여성작가론』, 태학사, 312-358면.
-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에 관한 일고」, 『한국고전연구』 1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6, 264-291면.
- 이정아, 「‘시집살이’ 말하기에 나타난 균열된 여성 의식 : 시집살이 체험담과 시집살이 노래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23집 1호, 한국여성연구원, 2006. 6. 189-219면.
- 이정아, 「시집살이 노래 구연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과 여성 의식에 관한 연구」, 이대 박사논문, 2006. 1-184면.
- 이정옥, 『내방가사 향유자 연구』, 박이정, 1-388면.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전권,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8.

## ABSTRACT

Women's Self-awareness Revealed in Kyubang gasa and Folk song  
<Sijipsali>

Lee, Jung-Ar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ain the aspects of self-identity owned by the women of different classes under the powerful patriarchal system by comparing the self-awareness of women revealed in Kyubang gasa and Folk song <Sijipsali> . It is through these differences that this study will take a look at the aspects of women's self-awareness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ich may be interpreted in a uniformly fixed way.

Joseon ladies Kyubang gasa and Folk song <Sijipsali> on their married life at their in-laws are a genre of female expression reflecting their double-repressed desire for speaking under the strengthened patriarchal system of the late Joseon dynasty. They were culturally produced by the women of the nobility and those of the lower class, but they had one thing in common: both of them were created by a group of women living in the same age. The researcher think that the different aspects of female self-awareness in the Joseon dynasty are to be depicted by displaying their differences on the basis of their common ground.

With this in mind, the researcher compared the expressions of women's self-awareness expression by focusing on their works on their married life in their in-laws among the works included in Kweon Yeong-cheol's 'Kyubang gasa' and 'An Outline of Korean Oral-tradition Literature'. As a result, this survey shows that the speakers in the Kyubang gasa recognize their self-identity in comparison with male self, whereas the speakers in the Folk song <Sijipsali> on their married life at their in-laws base their identity as their self before their marriage.

The women's self appearing Kyubang gasa in the Joseon dynasty

didn't show itself in their songs on their married life on their in-laws. Unlike the speakers in the Kyubang gasa who finally followed the normative self in the midst of fierce self conflict, those in the latter didn't display any ethical conflict between the ideological self and the desire-based self. With these differences, two genres existing in the same age have a typical character as female texts containing the women's self-statement. The women's self-awareness revealed in the Kyubang gasa was based on the self-identity of the nobility, whereas the self in the Folk song <Sijipsali> on their married life at their in-laws regarded itself as workaholics whose awareness of the reality revealed the women's intention to get back to their maiden period before their marriage.

**Key Words** Sijipsali (Women's Married Life in their In-laws), Kyubang gasa, Folk song <Sijipsali>, Self-awareness, Self-identity

논문투고일 : 2007. 5. 19

심사완료일 : 2007. 5. 30

게재확정일 : 2007. 6. 8